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이 브라마는 불멸의 형상인 아버지의, 걷고 말하는 옥좌다. 그가 브라마에게 들어오면, 그때 그가 너희 브라민들을 창조한다.

질문: 똑똑한 자녀들은 어떤 비밀들을 이해하고 남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

대답: 브라마가 누구이며, 브라마가 어떻게 비슈누가 되는지, 그 비밀이다. 프라자피타 브라마는 여기에 있다; 그는 신인이 아니다. 브라마는 브라민들을 통해서 지식의 희생의 불을 지켰다. 오직 현명한 자녀들만이 이 모든 비밀들을 이해하고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기마병들(기병대)과 보병들은 이것에 대해 혼란스러워 한다.

노래: 쉬바에게 경배를.

음 산티. 오직 한 분만이 신봉의 길에서 찬양된다. 사람들은 그의 칭송을 노래 부르지만, 그를 알지도 못하고 정확하게 그를 소개받지도 못한다. 그를 정확하게 찬양할 방법을 알았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그것을 설명했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신이 높은 중에 가장 높다는 것을 안다. 그의 그림이 주된 것이다. 또한 브라마의 자녀들 역시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너희들 모두 브라민들이다. 오직 너희 브라민들만이 브라마를 안다; 다른 이는 아무도 그를 모른다. 그래서 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다. 그들은 말한다: 이 사람이 어떻게 브라마일 수가 있습니까? 브라마는 서틀 리전에 거주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왔지만, 그러나 인류의 아버지가 피조물들이 없는 서틀 리전에 존재할 수는 없다. 이것에 대해 사람들은 너희와 논쟁을 많이 한다. 너희들은 그들에게 브라마와 브라민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느냐? "그리스도(Chris)"라는 말에서 "기독교인(Christian)"이라는 말이 나왔고, "붓다(Buddha)"라는 말에서 "불교도(Buddhist)"라는 말이, "아브라함(Abraham)"이란 말에서 "이슬람(Islam)"이란 말이 나왔듯이, 프라자피타 브라마로 인해 브라민들이 널리 알려졌다. 아디 데브 브라마가 있다. 사실, 브라마를 신인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잘못이다. 그들 스스로를 브라민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브라마가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그는 누구의 피조물이었습니까? 누가 브라마를 창조했습니까?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못한다. 오직 너희 자녀들만이 쉬브 바바가 들어온 수레가 전에 크리슈나 왕자에게 속했던 영혼이라는 것을 안다. 84생을 취한 다음에 그는 브라마가 되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태어날 때 받은 이름은 달랐다. 그러다가 바바가 이 사람에게 들어왔고, 그때 브라마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너희 자녀들은 이 브라마가 비슈누의 형태가 된다는 것도 안다; 그는 나라얀이 된다. 그의 84생의 마지막에 그는 평범한 수레 안에 있다. 각 영혼이 지닌 육신은 그의 수레다. 불멸의 형상인 분이 이 걷고 말하는 옥좌를 가진다. 시크 교도들은 불멸의 옥좌라고 부르는 옥좌를 만들었다. 여기에서는 모두가 불멸의 옥좌들이다; 모든 영혼은 불멸의 형상들이다. 높은 중에서 가장 높은 신에게 수레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느냐? 그는 지식을 주기 위해 이 수레에 들어와 앉는다. 오직 그만이 지식으로 충만한 분이라고 불린다. 그는 창조주와, 창조의 시작, 중간, 끝에 대한 지식을 준다. 지식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면의 모든 비밀을 아시는 분이라거나, 또는 그 한 분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뜻은 아니다. 모든 곳에 편재한다는 의미는 다르고, 자니자난하르의 의미 또한 다르다. 인간들은 온갖 것을 다 혼동시키고,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무슨 말이든 다 한다. 너희 자녀들은 이제 너희 브라민들이 모두 브라마의 자녀라는 것을 이해한다. 우리의 가문이 모든 가문들 중에서 가장 높다. 신인들이 황금시대 시작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신인들이 가장 높다고 여긴다. 프라자피타 브라마의 자녀들이 브라민이다. 너희 자녀들 외에는 아무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브라마가 서틀 리전에 있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특별한 행사 때면 숭배 의식을 행하고 사람들의 집에 가서 먹는, 세상의 브라민들은 너희 브라민들과는 다르다. 특별한 때가 되어도 너희는 얻어먹으려고 누군가의 집에 가지 않는다. 이제 너희는 브라마의 비밀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들에게 말해라: 다른 모든 것을 잊혀두고 제일 먼저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불순한데서 순수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모든 측면들을 이해할 것입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그들은 아버지를 떠난다. 으뜸이며 가장 중요한 측면은 알파와 베타다. 아버지가 말한다: 끊임없이 나 하나만 기억해라. 나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들어가야 한다. 그도 역시 이름을 가져야 한다. 내가 와서 그를 창조한다. 브라마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너희는 아주 지혜로워야 한다. 기마병들과 보병들은 이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 각자 자기의 단계에 따라서 설명한다. 프라자피타 브라마는 여기에 있다. 그는 브라민들을 통해서 지식의 희생의 불을 지핀다. 그러므로 브라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프라자피타 브라마도 또한 여기에 존재해야 한다. 오직 그를 통해서만 브라민들이 있을 수 있다. 브라민 승려들은 자기가 브라마의 자녀라고 얘기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가문이 아득한 옛날부터 지속되어 왔다고 믿지만, 브라마가 언제 존재했는지 그들은 모른다. 너희들은 이제 브라민들이다. 브라마의 자녀인 이들이 브라민들이다. 저 사람들은 그들 아버지의 직업을 모른다. 바라트에 맨 처음에는 브라민들이 있었다. 브라민 계층(카스트)이 전체에서 제일 높다.

저 브라민들은 자기들의 카스트가 틀림없이 브라마에게서 나왔다고 믿지만, 그것이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는 말을 하지 못한다. 너희들은 프라자피타 브라마가 브라민들을 창조한다는 것을 안다; 그런 다음에 그 브라민들이 신인이 된다. 아버지가 와서 브라민들을 가르친다. 브라민들의 왕조는 없다. 브라민들의 가문이 있다. 마치 태양 왕조가 있는 것처럼, 오직 왕들과 왕비들이 있을 때에만 왕조가 있을 수 있다. 너희 브라민들 중에는 아무도 왕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카우라바와 판다바들의 두 왕국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건 틀리다. 그들 중 어느 쪽에도 왕국이 없었다. 지금은 백성에 의한 백성들의 정부다. 그런 것은 왕국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왕관이 없다. 맨 처음 바라트는 2중의 왕관을 쓴 왕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한 겹의 왕관을 쓴 이들이 있었다고 바바가 이미 설명해주었다. 지금은 왕관이 없다. 너희들은 이것을 설명하고 아주 명백하게 입증해야 한다. 이 지식을 잘 훈습한 이들은 아주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브라마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사람들은 비슈누를 알지도 못한다. 너희들은 이것 역시 설명해야 한다. 바이쿤트는 비슈누의 나라라고 불리는데, 락쉬미와 나라얀의 왕국이라는 뜻이다. 왕자일 때, 크리슈나는 자기 아버지가 왕이라고 말한다. 크리슈나의 아버지가 왕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크리슈나는 왕자라고 불린다, 그러므로 틀림없이 왕의 슬하에 태어났을 것이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왕자라고 불리지 않았을 것이다. 왕의 신분과 부자의 신분 사이에는 낮과 밤의 차이가 있다. 크리슈나의 아버지인 왕에 관한 언급은 없다. 크리슈나의 이름이 매우 칭송된다. 그의 아버지는 그렇게 높은 신분이라고 일컬어지지 않는다. 그의 지위는 2급인데, 단순히 크리슈나를 태어나게 하는 도구가 될 따름이기 때문이다. 그의 영혼이 크리슈나 영혼보다 더 많이 공부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나라얀이 되는 것은 크리슈나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사라진다. 틀림없이 브라민이었지만, 그는 크리슈나에 비해 공부를 덜 했다. 크리슈나 영혼은 그의 아버지 영혼보다 더 많이 공부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칭송 받는 것이다. 누가 크리슈나의 아버지였느냐? 아무도 이것을 모르는 것 같다. 앞으로 더욱 나아가면 너희가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여기에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 라테의 부모들 역시 있지만, 라테의 이름이 그 부모의 이름보다 더욱 칭송된다. 부모가 공부를 더 적게 했기 때문에 라테의 이름이 그들보다 더 높아진다. 이런 것들이 너희 자녀들이 설명해야 할 세부적인 내용들이다. 모든 것이 공부에 달려 있다. 브라마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그는 크리슈나가 되고, 그런 다음 84생을 취한다. 너희들 역시 84생을 취한다. 모든 이가 동시에 내려오지는 않는다. 이 공부에서 앞선 자들이 먼저 내려올 것이다. 모두가 등수대로 내려온다. 이런 것들은 아주 미묘한 문제다. 지혜가 부족한 자들은 이것을 훈습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등수대로 돌아간다. 너희들은 등수대로 옮겨간다. 마지막에는 아주 길게 늘어선 줄이 형성될 것이다. 사람들은 가서, 그들이 속하는 구역에서 등수대로 머물 것이다. 모든 이의 자리가 정해져 있다. 이 연극은 대단히 경이롭지만, 아무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은 가시의 숲이라고 불린다. 여기에서는 모두가 서로에게 계속 슬픔을 준다. 거기에서는 행복이 자연스러운 반면, 여기에서는 행복이 인위적이다. 오직 한 아버지만이 진정한 행복을 준다. 여기에서의 행복은 까마귀의 똥과 같다. 나날이 모든 이가 계속 타모프라단하게 된다. 참으로 슬픔이 많다. 사람들은 말한다: 바바, 마야의 폭풍이 참으로 많습니다. 마야는 혼란을 일으킨다. 극심한 슬픔의 감정이 있다. 행복의 공여자인 분의 자녀가 된 다음에 너희가 만일 슬픈 감정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아버지가 말한다: 자녀들아, 이것은 너희의 카르마의 괴로움이다. 너희들이 아버지를 찾았으니, 슬픈 감정이 없어야 한다. 요가의 힘으로 너희 과거 카르마의 잔고를 끝내라. 요가의 힘이 없으면, 벌을 경험함으로써 그 잔고들을 정산해야 한다. 벌을 경험한 뒤에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 너희는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이 열리고 심판이 있다. 여러 가지의 주제들이 있다. 드라마에 따라서 모든 이가 자궁이라는 감옥에서 많은 벌을 경험한다. 영혼들은 또 아주 해매며 돌아다닌다. 어떤 영혼들은 아주 큰 해를 입히기도 한다. 불순한 영혼이 다른 이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은 고생을 아주 많이 한다. 새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너희들은 지금 새 세계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거기에 가서 너희는 새 궁전들을 지을 것이다. 크리슈나가 태어나듯이, 너희도 왕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맨 처음에는 왕궁들 등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지어야 할 것이다. 누가 그것들을 짓느냐? 너희들이 그 슬하에 태어날, 그 부모들이다. 너희들이 왕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이 기억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너희가 볼 것이다. 이것을 바바가 너희에게 지금 얘기해주지는 않겠다; 그러면 이것이 인위적인 연극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바가 너희에게 아무 것도 얘기해주지 않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드라마에 예정되어 있지 않다. 바바가 말한다: 나 역시 하나의 배우다. 만일 내가 미래의 것들을 미리 안다면 너희에게 많은 것들을 말해줬을 것이다. 만일 바바가 안타르야 미였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했을 것이다. 아버지가 말한다: 아니다, 초연한 관찰자로 드라마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계속 지켜보아라. 동시에, 기억의 순례에 도취된 상태를 유지해라. 일부가 실패하는 것은

이것에서다. 지식은 더 많거나 더 적을 수가 없다. 오직 기억의 순례에서만 때로는 더 많은 기억이, 때로는 더 적은 기억이 있다. 너희들이 받은 지식은 항상 그대로다. 때로는 기억의 순례에 열정이 있고, 때로는 없다. 순례에서 오르락내리락 동요가 있다. 지식을 통해서 사다리를 오르지는 않는다. 지식은 순례가 될 수 없다. 순례는 기억에 관한 것이다. 아버지가 말한다: 기억에 머뭇머뭇 너희는 안전하게 머문다. 육체의식을 가질 때 너희가 많이 기만당하고 죄 많은 행동을 한다. 정욕이 가장 큰 적이다. 이것에서 실패하는 자들이 많다. 바바는 화에 대한 주제는 그리 많이 다루지 않는다. 1초 만에 삶 속의 해방을 받는 것은 지식에 관한 얘기이며, 또한 온 세상의 대양을 모두 잉크로 만들어도 지식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역시 한다. 이런 “알파를 기억해라!”라는 말도 있다. 사람들은 “기억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들은 “저희들을 철시대에서 황금시대로 데려가 주소서!”라고 말한다. 낡은 세상에는 슬픔이 있다. 너희들은 폭우에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익사하는지 볼 수 있다. 폭우 등에 의한 자연재해들이 있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이 계속해서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쿵바카르나의 잠에 빠져 자고 있다. 멸망의 때에 깨어날 테지만, 그 때에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모두가 죽을 것이다. 심지어 땅마저도 전력을 다해 흔들릴 것이다. 폭풍과 폭우들이 올 것이다. 폭탄들이 투하될 것이고, 여기에서는 내전까지 더해질 것인데, “피의 강”이라는 말이 기억되어 왔기 때문이다. 때리고 죽이는 일들이 아주 많을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 소송을 걸어서, 틀림없이 서로 싸울 것이다. 그들이 전부 고아들인 반면, 너희는 주인이며 주님에게 속한다. 너희들은 싸울 필요가 없다. 브라민이 됨으로써 너희는 주인이며 주님에게 속한다. 남편과 아버지는 주인이며 주님이라고 일컬어진다. 쉬브 바바는 모든 남편들의 남편이다. 약혼을 하면 처녀는 묻는다: 언제쯤 제 남편을 만나게 되나요? 너희 영혼들은 말한다: 바바, 이제 저는 당신과 약혼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당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일부는 진실하게 쓰고, 일부는 많이 숨긴다. 그들은 정직하게 쓰지 않고 말한다: 바바, 제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악덕에 빠지는 사람은 지각으로 아무 것도 훈습할 수 없다. 바바가 말한다: 아주 심한 실수를 저지를 경우, 너희는 끝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왔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째서 얼굴을 추하게 더럽히느냐? 비록 천국에는 가겠지만, 동전 몇 푼어치 가치뿐인 지위를 차지할 것이다. 왕국이 세워지고 있다. 일부는 패배당해서 여러 생에 걸쳐 지위를 망친다. 그들은 이런 질문을 받을 것이다: 네가 아버지에게 와서 차지할 지위가 고작 이것이냐? 아버지가 대단히 고귀해지는데, 자녀들이 왜 백성이 되어야겠느냐? 아버지가 옥좌에 앉을 텐데, 그의 자녀들이 하녀와 하인들이 된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다. 마지막에 너희는 모든 것을 비전으로 볼 것이다. 그 다음 매우 후회할 것이다: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위해 내가 저랬구나. 산야시들 역시 정결하게 지낸다. 사악한 자들 모두가 그들 앞에 머리 숙여 절한다. 순수성은 존중된다. 어떤 이의 복에 없으면, 아버지가 와서 가르쳐도, 그는 여전히 실수를 계속 저지를 것이다. 그는 심지어 아버지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죄를 많이 짓는다. 너희 자녀들 위에 지금 목성의 징조가 드리워져 있다. 이런 것들보다 더 위대한 징조는 없다. 그 기운이 너희 자녀들 위에 원을 그리며 계속 감돌고 있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떼라고 말한다.

실천 요지:

1. 이 드라마의 각 장면을 초연한 관찰자로 지켜보아라. 한 아버지를 기억하며 도취감을 유지해라. 기억의 순례에 대한 열정이 줄어들게 절대로 허락하지 말아라.
2. 이 공부에 대해 결코 부주의해지지 말아라. 높은 행운을 얻으려면, 반드시 순수해져야 한다. 패배당해서 여러 생에 걸쳐 너희의 지위를 망치지 말아라.

축복: 진실로 자비로워져서 세상에 대한 자애의 느낌으로 각 영혼의 안전을 위한 계획을 세워라. 지금 현재의 때에 일부 영혼들은 제 자신에게 손실을 가져오는 도구가 된다. 자비로워져서 그들을 위한 계획을 세워라. 어느 영혼의 배역을 보면서도 동요되지 말고, 그 영혼의 안전을 위한 수단만 생각해라. 그 일이 항시 계속되리라고도 생각지 말고, 그 나무가 잎들을 떨궈야 한다고도 생각지 마라, 그렇지 않다. 닥쳐오는 장애들을 끝내라. “세계의 시혜자이며 장애의 파괴자”라는 너희의 칭호에 걸맞게 생각, 말, 행위에서 자비로워지고 분위기를 바꾸는 데 협조해라.

슬로건: 그들의 지각에 주의라는 경비를 세워두는 자들은 카르마 요기가 될 수 있다.

*** 음 산티 OM SHANTI ***